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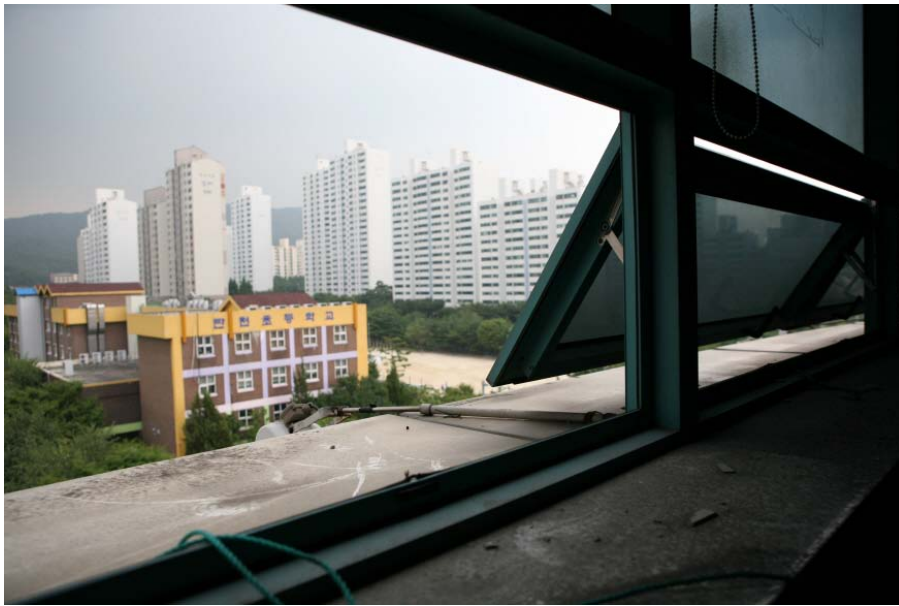
시민환경연구소 석면조사보고서 2009년 9월10일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리모델링공사 중단된 상가건물 4-5층 바닥에

3-4% 백석면 천정텍스 수 십 톤 깨진 채 방치,

길 건너 초등학교와 인구밀집 아파트촌 석면비산 우려!

성남 수정구 단대동 재개발현장서는 최고 20% 백석면함유된 슬레이트 폐기물!



<사진, 성남 정자동 석면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한솔프라자 건물 5층 창문밖으로 초등학교와 주택단지가 보인다>

2009년 9월10일

시민환경연구소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남환경운동연합

1 조사배경

- 가) 석면문제가 큰 사회적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알려져 온 석면피해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위적인 건물철거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의 파손으로 인한 석면비산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4월 발생한 베이비파우더 석면탱크 사건으로 석면공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 나) 서울지역에서는 대규모 뉴타운과 균축 및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1배나 되는 넓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석면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한편 지방 특히 수도권외의 경우 재개발의 붐이 서울보다 더 큰 기세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도시 대부분이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등 경기도 많은 지역이 재개발의 회오리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 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석면안전조치가 크게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건물리모델링 과정에서 역시 석면문제가 크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된다고 한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재개발현장인 수정구 단대동현장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프라자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결과

2009년도 성남지역 석면조사결과표 (조사기관; 시민환경연구소, 성남환경운동연합)							
조사대상						분석결과	
일련번호	날짜	위치	대상	비고	종류	석면종류*	석면농도*
1	6월30일	성남시 단대동	재개발 현장 (입구)	슬레이트	고형	백석면	13-15%
2			재개발 현장 (가운데)	슬레이트	고형	백석면	18-20%
3			재개발 현장 (가운데)	토양	고형	백석면	1%미만
4	8월25일	성남시 정자동	한솔프라자 4층	천정텍스	고형	백석면	3-4%
5			한솔프라자 5층	천정텍스	고형	백석면	3-4%
6			한솔프라자 4층 (창가 바닥)	가루, 먼지	고형	백석면	1%미만

분석기관; 이사아(ISAA)석면분석연구소, 분석방법; PLM -> FE-SEM(주사전자현미경) -> 성분분석기(EDS), 고형기준; 1%

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재개발현장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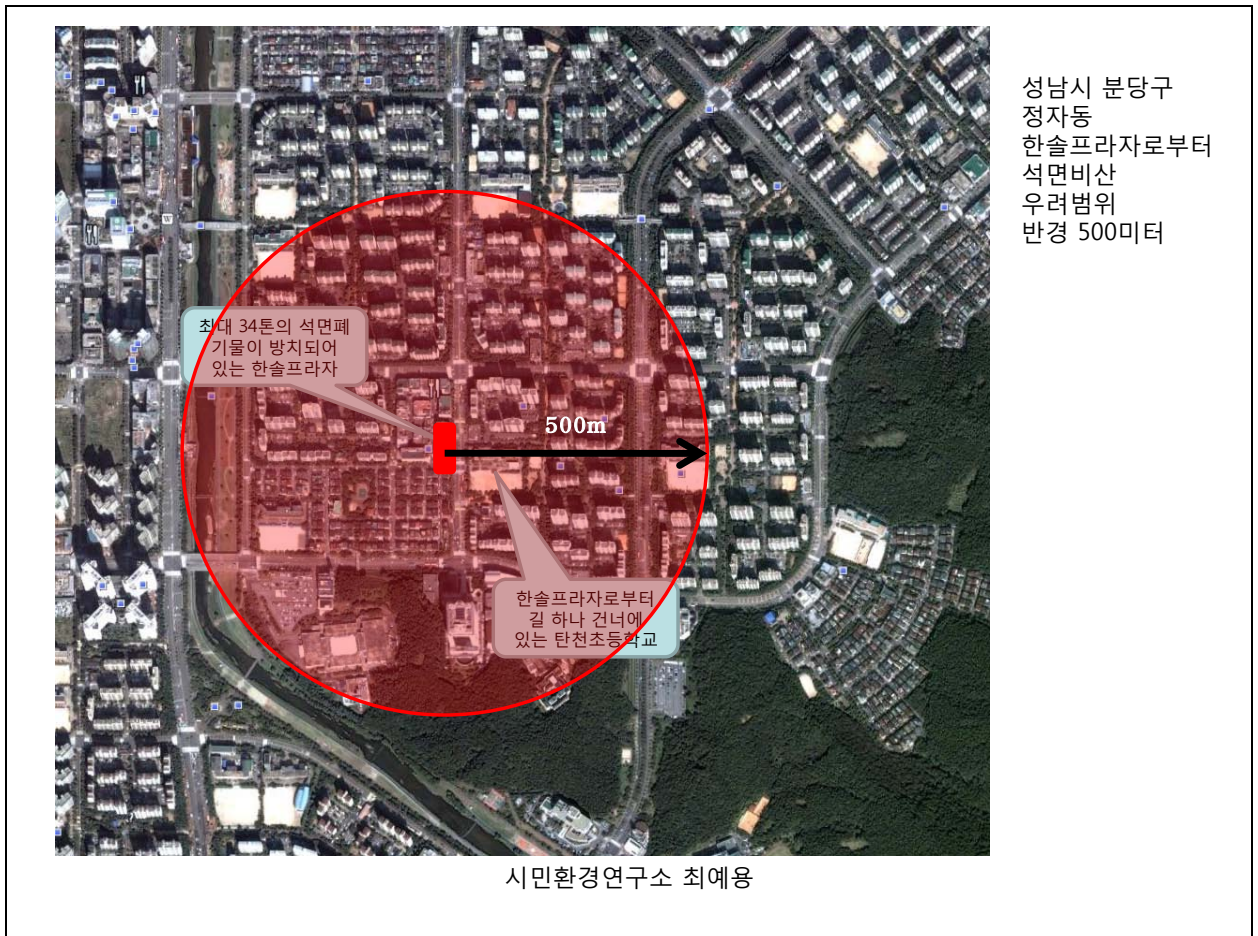
- ① 6월 30일 현장에서 채취된 고품시료(슬레이트)에서 최고 20%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현장 입구와 가운데에서 각각 채취된 고품시료에서 각각 13-15%와 18-20%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현재 고품시료의 경우 1%가 넘는 석면이 함유된 경우 석면폐기물로 간주하여 특정폐기물로 안전처리되어야 한다. 시료의 종류는 슬레이트 지붕재로 보인다.
- ② 또 현장 가운데 위치에서 채취된 토양시료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토양이나 먼지의 경우 법적 기준항목이 아니어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석면철거가 진행되는 작업현장이 아닌 일반 환경의 경우 이전에 일어난 석면비산문제를 파악하는데 먼지나 토양시료가 유일한 매체로 평가되며 석면이 검출될 경우 주변에 석면비산발생원이 존재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된다.
- ③ 본 조사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주택철거과정에서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한 철거과정에서 안전규정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함유된 고품폐기물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프라자의 경우,

- ① 건축물 개요
 - ✓ 공식명칭; 용마트원프라자 제에이동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7-3, 127-4, 127-5, 127-6번지 집합건물
 - ✓ 건물내역;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판매시설
 - ✓ 건물규모; 지상5층(각층 약 1,800 m²), 지하5층(각층 약 2,500 m²)
- ② 2년 여간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이 5층짜리 상가건물의 4-5층 바닥에서 채취된 고품시료(텍스)에서 3-4%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바닥의 먼지시료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 ③ 4-5층에 방치되어 있는 백석면폐기물은 천정텍스를 기준으로 최대 3,600 m²의 넓이에 해당하고 무게는 최대 34톤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이 건물은 현재 1층부터 5층까지 각종 천정마감재가 모두 뜯겨져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4-5층의 경우 석면함유가 확인된 텍스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뜯겨진 상태로 바닥에 버려져 있다. 창문들이 모두 열려져 있는 상태여서 바람에 의

¹ 보통의 천정텍스 30cm*60cm(=0.18m²) 1장의 무게가 1,698g 즉 약 1.7kg이다. 따라서 2개층에 걸쳐 최대 2만여개의 30cm*60cm 단위크기의 석면함유 천정텍스가 안전조치 없이 뜯겨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무게로는 34톤에 해당한다.

해 석면면지가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크다. 건물앞의 도로 하나를 건너면(50미터가 채 안됨) 초등학교(탄천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이어져 있어 이 현장으로부터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석면노출우려가 커 보인다.



3 문제해결방향

가) 수정구 단대동 재개발현장의 경우,

- ① 현장에서 석면함유된 건축폐기물이 다수 발견되고 주변의 토양이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석면철거의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석면관리를 책임지는 노동부 성남지청,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그리고 성남시청 등 관계당국의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철저한 발암물질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 ③ 또한 개발지역 인근으로의 석면비산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환경모니터링과 건강모니터링도 필요하다.
- ④ 차제에 건물철거 계획이 포함된 도시개발계획을 석면안전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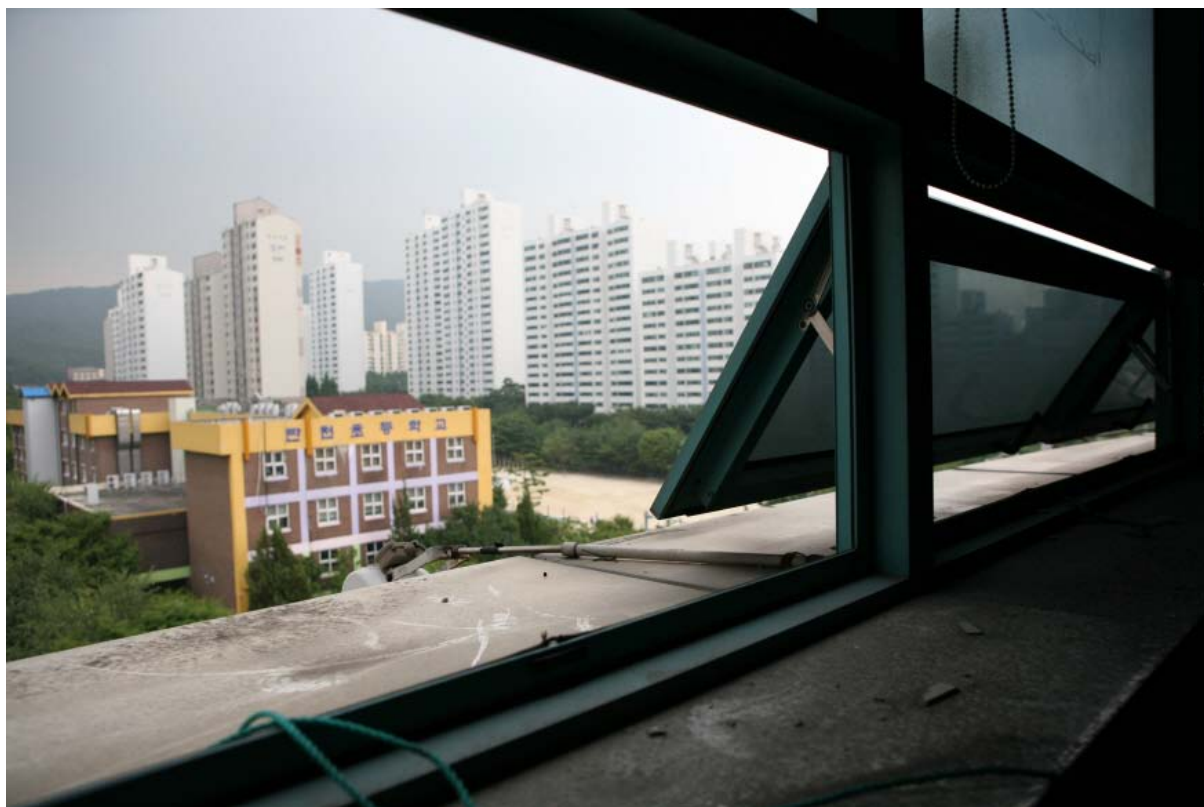
나) 분당구 정자동 한솔프라자의 경우,

- ① 석면비산 가능성이 큰 천정텍스가 최대 34톤 가량이나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석면공해가 매우 심각하다. 인근 초등학교와 주거지역으로의 석면비산을 막기위해 성남시가 나서 이 건물에 대한 긴급비산방지조치(이중 비닐보양과 출입통제 등)를 취하고, 석면폐기물을 안전하게 우선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 ② 안전조치 선행 후 소요된 경비를 건물주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2년 동안 건물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건물주가 석면안전처리를 책임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건강을 위해 자치단체가 선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 ③ 더불어 주변의 학교와 주거지역으로 석면이 비산되었는지에 대한 환경모니터링과 건강피해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④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는 물론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사진자료



<사진, 성남 정자동 한솔프라자 4층 모습, 백석면이 3-4%함유된 천정텍스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



<사진, 한솔프라자 5층 열린 창문밖으로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창가에 석면텍스 조각이 보인다>



<사진, 한솔프라자 외부모습, 건물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2년째 방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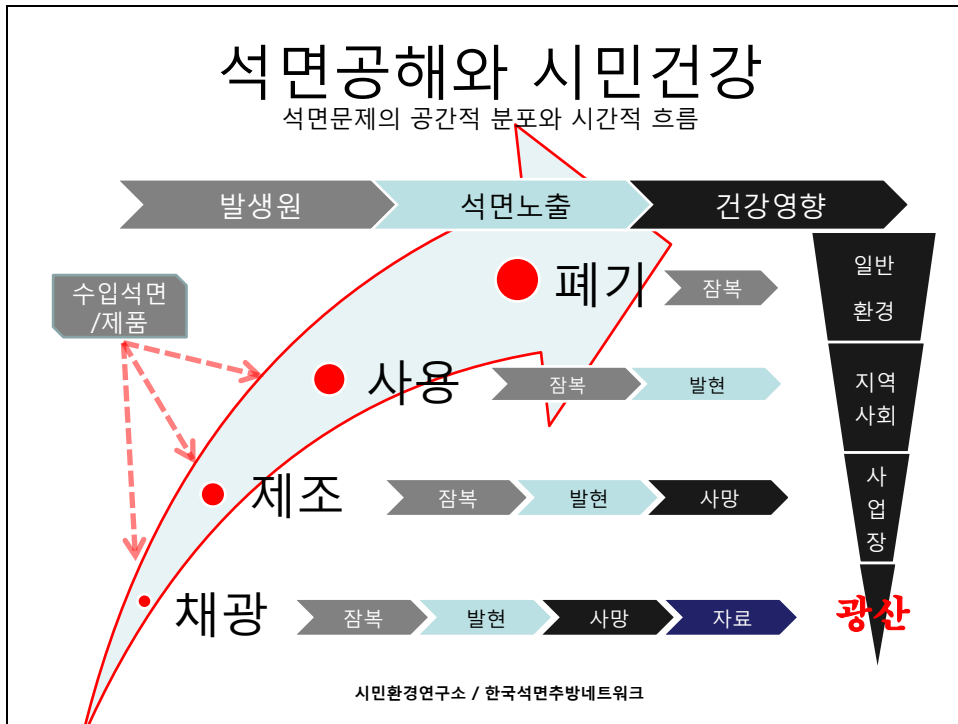


<사진, 탄천초등학교 옥상에서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사무국장이 석면폐기물이 방지된 한솔프라자 건물을 가리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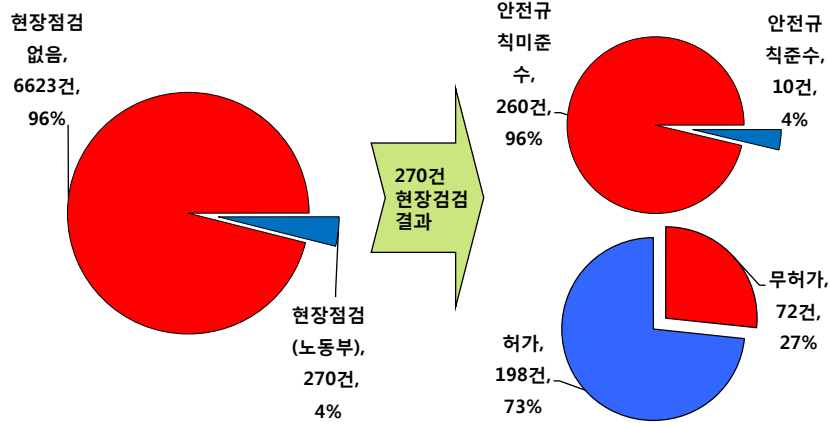


<사진, 탄천초등학교 입구에서 바라본 한솔프라자 건물>

5 참고자료



석면취급·해체사업장 점검실태 2008년도(8월까지) 국정감사자료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 반코)

BAN a SBESTOS NETWORK KOREA
<http://cafe.daum.net/asbestosfree>

